

張介賓의 醫易思想에 關한 小考

金根瑩 · 尹暢烈*

I. 緒 論

周易은 東洋의 經,史,子,集에 있어서 모든 학술의 머리가 되어오고 있어 역사적으로 易學理論이 각광을 받아 왔다.

그러므로 韓醫學 이론에 투영되게 된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이유 뿐 아니라 周易이 太極과 陰陽變化의 理致를 논리화한 書이고 韓醫學은 陰陽五行과 天人合一說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韓醫學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易學이 중요하다는 韓醫學 자체의 필요성에서도 易學은 韓醫學과 깊은관련이 있다.¹⁾

예를들면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의 사상은 一元論의 二元論의 陰陽原理로써 森羅萬象의 變化하는 理致를 설명한 易學理論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韓醫學 理論을 설명하는 도구이자 사상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黃帝內經》, 漢代의 張仲景, 隨代의 楊上善, 唐代의 孫思邈, 金元四大家로 이어지는 醫易學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張景岳이 醫易學을 더욱 체계화 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諸家가 간혹 醫理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국한된 經驗에 입각하여 偏僻되거나 그릇된 理論을 제출함으로써 後世에 오히려 醫理를 더욱 알기 어렵게 한 弊害도 없진 않았다.

이와 같이 그릇된 理論을 제출하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易理를 바로 알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경우도 적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唐代의 孫思邈은 “不知易이면 便不足以言太醫라.”²⁾라 하였고 張景岳도 “雖陰陽已備於內經이나 而變化大乎周易이라³⁾” 하여 醫易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金⁴⁾, 李⁵⁾, 金⁶⁾의 논문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저자는 張景岳의 醫易思想 研究가 韓醫學의 原理의 측면

과 張景岳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意義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論文은 張景岳이 설명한 醫易相通의 原論과 生理, 病理, 辨證論治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醫易思想을 고찰 하고자 한다.

II. 本 論

第1節. 醫易相通

1. 天人一理

天人一理는 사람과 자연관계에서 매우 많은 일치함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醫와 易이相通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易·繫辭》에 “易이 與天地準이라. 故로 能彌綸天地之道하나니...7)”. 《易·繫辭》에 “天地1 設立어든 而易이 行乎其中矣니...8)”이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卦, 爻, 象을 이용하여 사람과 天地의 통일성을 말했는데 《易·繫辭》에 “易之爲書也1 廣大悉備하야 有天道焉하며 有人道焉하며 有地道焉하니 兼三才而兩之라. 故로 六이니 六者는 非他也라 三才之道也니...9)”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天地人 三才의 통일적 사상은 《內經》안에도 역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身半以上에 其氣三矣니 天之分也는

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醫易義> p240.

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醫易義> p240.

4. 金東主: 黃帝內經과 周易의 中心思想比較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5. 李德珉: 易과 韓醫學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6. 金圭烈: 章楠의 醫易思想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 金錫鎭 講解: 大山周易講解 下卷. 서울. 大有출판사. 1993. 繫辭上四章 p305.

8. 金錫鎭 講解: 大山周易講解 下卷. 서울. 大有출판사. 1993. 繫辭上七章 p315.

9. 金錫鎭 講解: 大山周易講解 下卷. 서울. 大有출판사. 1993. 繫辭下十章 p394.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敎室

1. 과학사상연구회: 과학과 철학 제5집. 서울. 통나무. 1994. p221.

天氣主之요, 身半以下에 其氣三矣니, 地之分也은 地氣主之라¹⁰⁾ 하였다. 이것은 사람과 천지의 氣가 통일적으로 일어나움을 말하고 있다.

〈三部九候論〉에서 “上部의 天은 兩額之動脈이요, 上部의 地는 兩頰之動脈이며, 上部의 人은 耳前之動脈이라. 中部의 天은 手太陰也요, 中部의 地는 手陽明也며 中部의 人은 手少陰也라. 下部의 天은 足厥陰也요, 下部의 地는 足少陰也며, 下部의 人은 足太陰也라¹¹⁾”하여 맥박의 부위와 所候之氣 또 天地人으로 나누어 論하고 있다.

또한 각 부위의 動脈으로 상응하는 내부 장부의 징후를 진찰하였는데 “下部之天으로 以候肝하고 地以候腎하며 人以候脾胃之氣라¹²⁾”하고 中部는 “天以候肺하고 地以候胸中之氣하며 人以候心이라¹³⁾”하고 上部는 “天以候 頭角之氣하며 地以候 口齒之氣하며 人以候耳目之氣라¹⁴⁾”하였다.

이와같이 《內經》에서 인체부위의 장부 맥박등을 天地人 三才로 나누어 설명함은 인체가 하나의 小天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張景岳은 “天人一理¹⁵⁾”라 말하였고 또 “人生稟 二五之精하야 爲萬物之靈이니 得天地之中和하야 參乾坤之化育이라. 四象¹ 應天和 四體¹ 應地하니 天地之合辟은 卽吾身之呼吸也요 晝夜之潮汐은 卽吾身之脈息也라. 天之北辰은 爲群動之本니 人之一心은 爲全體之君也라. 由是觀之한텐 天地氣는 卽人之氣요 人之體는 卽天地體라¹⁶⁾”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과 천지자연과의 하나의 유기체적 관계를 進一步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비록 牽強附會 하는 것도 없진 않지만 인간과 자연과의 상응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따라서 섭생 예방등을 지도하며 臨床辨證施治에서도 또한 중요한 意義를 갖게 된다.

2. 一陰一陽之謂道

《易·繫辭五章》 “一陰一陽之謂道¹⁷⁾”라 하여 陰陽對立 統一法則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우주의 기본 規律이다 즉 陰陽二氣의 상호작용下에서 발생 발전과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老子가 말한 “道生一하고 一生二하고 二生三하고 三生萬物하니 萬物은 負陰而包陽하고 沖氣以爲和니라¹⁸⁾” 또한 陰陽對立 統一法則이 자연계의 보편 規律임을 가 르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그 生長 壯老의 생명 규율 역시 음양법칙의 밖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韓醫學에서 陰陽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內經》에는 “陰陽者는 天地之道也요 萬物之綱 紀요 變化之父母요 生殺之本始요 神明之府也라¹⁹⁾” 하였으며 인체 生理面을 論한 즉 “陰平陽秘 精神乃治²⁰⁾”라 하였다. 病理面을 論한 즉 “陰勝則陽 病이요 陽勝則陰病이라. 陽勝則熱 陰勝則寒²¹⁾” 이라 하였다. 섭생 예방적 측면은 “法於陰陽하고 和於述數라²²⁾” 언급하였으며 審脈辨證面에서는 “善 診者¹ 察色按脈하야 先別陰陽이라.²³⁾” 하였다.

또한 藥物의 性味 질병의 성질 인체의 부위와 자연계의 萬事萬物등이 음양의 밖에서 나오지 않으니 所謂 “陰陽者는 數之可千이요 推之可百이요 數之可千이요 推之可萬이라. 萬之大不可勝數니 然 其要一也라²⁴⁾”고 한 것이다.

張介賓은 孫思邈의 ‘不知易이면 不足以言太醫 라.’ 는 말을 초기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醫學

11.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三部九候論〉 p111.
12.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三部九候論〉 p111.
13.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三部九候論〉 p111.
14.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三部九候論〉 p111.
15.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醫易義〉 p240.
1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醫易義〉 p241.
17. 金錫鎮 講解: 大山周易講解 下卷. 서울. 大有출판사. 1993. 繫辭上五章 p309.
18. 朴一峰譯著: 老子道德經. 서울. 育文社. 1988. 42章 p131.
19.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陰陽應象大論〉 p26.
20.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生氣通天論〉 p14.
21.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陰陽應象大論〉 p26.
22.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上古天真論〉 p1.
23.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陰陽應象大論〉 p28.
24.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陰陽離合論〉 p38.

10.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至真要大論〉 p436.

과 易을 깊이 연구하여 不惑의 나이를 넘어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天地之道는 以陰陽二氣而造化萬物하고 人生之理는 以陰陽二氣而長養百骸라. 易者는 易也니 具陰陽動靜之妙요. 醫者는 意也니 合陰陽消長之機니라. 雖陰陽已備於內經이나 而變化莫大乎周易이라. 故로 天人一理者는 一此陰陽也요 醫易同源者는 同此變化也니라25)” 라고 하여 醫와 易이 相通되는 理致를 더욱 발전시켰다.

위와 같이 陰陽對立 統一法則을 사용하여 人間의 生命活動과 自然 해석에 응용하였고 醫와 易 또한 같은 원리에 立脚하니 相通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太極과 一生二法

醫와 易에서는 萬물이 一에서 비롯되며 一이 나뉘어 二가 되어 비로서 生化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所謂 ‘一’은 太虛를 가리키고 이것이 곧 太極이다.

《內經》에 “太虛廓廓이 肇基化元이니 萬물이 資始하고 五運이 終天이라 布氣眞靈하야 總統坤元… 曰陰 曰陽 曰柔 曰剛 幽縣既位하고 寒暑弛張이니 生生化化하야 品물이 咸彰이라26)” 하였다. 이것은 만물이 廓廓적 太虛之中에 비로서 시작되어 나오게됨은 陰陽剛柔의 변화에 있으며, 坤元主 宰下에서 生生化化 하는 것이다27).

이것은 《易·彖傳》의 “大哉라 乾元이여 萬물이 資始하나니 乃通天이로다28)”, “至哉라 坤元이여 萬물이 資生하나니 乃順承天이니…29)” 말과 상호 일치되고 있다.

張景岳은 “太虛之初엔 廓然無象이니 自無而有하야 生化肇焉하니 化生於一을 是名太極이라30)” 고 한후에 太極을 나누면 二가 되니 즉 動하여 陽을 生하고 靜하여 陰을 生하니 陰陽消長變化로 말미암아 무궁한 生生化化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또한 《易·繫辭》의 “易有太極하니 始生兩儀하고 兩儀1 生四象하고 四象1 生八卦하니…31)” 와 서로 일치하고 있다.

一分爲二는 부단히 連역적으로 나뉘어 無窮에 이를수 있기에 張景岳는 또한 “易道無窮而 萬生於一이라. 一分爲二하며 二分爲四하며 四分爲八하며 八分爲十六하며 自十六而三十二하며 三十二而六十四하야 以至三百八十四爻하니 萬有一千五百二十策

而交感之妙니라. 化生之機와 萬物之數1 皆從此出矣니라32)” 고 하였다.

이는 무궁무진한 生生化化가 一分爲二에서 시작되지 않음이 없음을 설명한 것이다. 人身는 小天地나 未生之前에 父母에서 비롯해 기틀이 되니 “因虛以化氣하고 因氣以造形하니 而爲先天一氣之祖也… 一動一靜하니 互爲其根하고 分陰分陽하야 兩儀立焉하니 是爲有象之始요, 因形以寓氣하고 因氣以化神하니 而爲後天體象之祖也니라33)” 고 하였다. 계속하여 ‘兩儀生四象’에 대해서도 “大少陰陽은 爲天四象이며 大少剛柔는 爲地四體니라 耳目口鼻以應天하고 氣血骨肉以應地하니라34)” 고 하였다.

이와같이 景岳은 ‘化生於一’의 ‘一’을 太極이며 分化되는 근본으로 인식하고 一生二法의 理致로써 天地自然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一’은 分化의 根本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물의 통일체를 가리키는 것이며 ‘一分爲二’의 ‘二’는 통일체 내부에 포함된 대립과 통일의 兩方面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체의 사물과 현상 모두는 모순과 통일이며 인체의 현상도 또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4. 生之本 本於陰陽

동양철학에서는 만물의 化生이 모두 天地陰陽二氣의 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人之生도 역시 그러하니 《內經》에서 말한 “陰陽和故能有子35)”라 한것이 그러하다.

26.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天元紀大論> p294.

27. 李浚川 肅漢明 主編: 醫易會通精義.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03.

28. 金錫鎮 講解: 大山周易講解 上卷. 서울. 大有출판사. 1993. p74.

29. 金錫鎮 講解: 大山周易講解 上卷. 서울. 大有출판사. 1993. p98.

30.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太極圖論> p11.

31. 金錫鎮 講解: 大山周易講解 下卷. 서울. 大有출판사. 1993. 繫辭上十一章. p341.

3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醫易義> p241.

3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醫易義> p241~p242.

34.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醫易義> p242.

35.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25.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醫易義> p240.

《周易》에는 “男女1 構精에 萬物이 化生하나니...36)”, “乾道1 成男하고 坤道1 成女하나니...37)” 라 한 것과 相通하고 있다. 여기에서 男女乾坤은 또한 一陰一陽이며 다만 陰陽이 相合하여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化生할 수 있는 것이다.

景岳은 《素問·上古天真論》의 “女子二七에 而天癸至하고 任脈通하고 太衝脈盛하야 月事以時下故로 有子라 38)”와 “二八에 腎氣盛하고 天癸至하야 精氣溢瀉하고 陰陽和라. 故로 能有子라39)”를 근거로 하여 “有子之道는 必陰陽合而後에 胎孕成이라. 故로 天一生水而成於地之六하고 地二生火而成於天之七이니 所以 萬物之生에 未有不因 陰陽相感而 能成其形者라. 此는 一陰一陽之爲道也라. 40)”고 進一步的으로 해석하였다

景岳은 또한 生殖에 관련된 天癸를 陰陽으로 해석하여 “癸者는 天之水요 干名也라. 干者는 支之陽이요 陽은 所以 言氣라. 癸者는 壬之偶요 偶는 所以 言陰이니 故로 天癸者는 天一之陰氣耳이라. 氣化爲水하니 因名天癸라41)”고 하였다. 이는 天癸가 陰陽을 포함한 先天之精이라 한 것이다.

또한 “人之生也는 合父母之精하야 而有其身이니 父得乾之陽하고 母得坤之陰이라42)” 하여 더 확실히 설명하였다. 이것은 《素問·生氣通天論》에서 말한 “生之本이 本於陰陽이라. 43)”고 말한 것과 상통하고 있다.

5. 生氣通天

古人은 인간의 生命活動과 자연계의 상관성에 대해 인간은 小天地라 인식하였다. 生之初에 오직 父精母血에 말미암아 陰陽相合하여 생성하니 父精母血은 內因이고 이것이 근본이다. 《內經·生氣通天論》에서 말한 ‘生之本 本於陰陽’인 것이다. 外因으로는 自然계로 볼 수 있는데 內因이 변화의 근거라면 外因은 변화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外因은 생활환경, 기후, 歲時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古人은 生育에 대해 ‘陰陽和’의 內因의 基礎를 중요시 하였는데 역시 自然기후, 지역, 계절 등의 문제에도 많이 강조를 하였다. 44)

《內經·生氣通天論》에서도 “夫自古로 通天者는 生之本이요 本於陰陽이라. 天地之間과 六合之內에 其氣九州九竅 五臟十二節이 皆通於天氣라45)”한 것은 인간의 生命活動의 근본은 陰陽이고 天氣

와 더불어 상통함을 말하고 있다.

張仲景도 “人稟五常하야 因風氣而生長이라46)”하였고 張景岳은 古代 醫家 및 易의 理致로서 “凡物之形而外者는 爲儀象之流行이요 臧而內者는 爲精神之升降이니 幽明動靜을 孰匪由天아!47)”라고 찬술하고 있다.

사람의 生之初에 이미 天癸에 通하였고 출생후 에는 역시 天地와 相應하므로 景岳은 六十四卦 圓圖를 형상에 比較하여 “六十四卦 列於外는 昭陰陽交變之理也라. 太極이 獨運乎其中하니 象心은 爲一身之主也라. 乾南坤北者는 象首腹之上下也요 離東坎西者는 象耳目之左右也라. 48)”하여 小天地인 인간의 生命活動이 天地自然의 이치와 상통함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生長壯老의 規律

사람의 生長 발육 및 그 성쇠 변화 규율에 관하여 《內經》에서는 여자는 七歲로 일단계로 삼고 八歲로 일단계를 삼아 每 일단계씩 현저한 변화가 있는데 七은 陽數고 八은 陰數이므로 여자는 陰에 속하는데 數는 오히려 陽이고 남자는 陽에 속하는

36. 金錫鎮 講解: 大山周易講解 下卷. 서울. 大有출판사. 1993. 繫辭下五章. p374.
37. 金錫鎮 講解: 大山周易講解 下卷. 서울. 大有출판사. 1993. 繫辭上一章. p296.
38.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上古天真論〉 p1~p2.
39.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上古天真論〉 p2.
40. 張介賓: 類經·上卷. 서울. 大成出版社. 1990. 〈藏象類〉 p63.
41. 張介賓: 類經·上卷. 서울. 大成出版社. 1990. 〈藏象類〉 p62.
42. 張介賓: 類經·上卷. 서울. 大成出版社. 1990. 〈藏象類〉 p64.
43.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生氣通天論〉 p13.
44. 李浚川 肅漢明 主編: 醫易會通精義.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05.
45. 王琦 外4人: 素問今釋. 〈生氣通天論〉 p13.
46.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出版社. 1992. 〈金匱要略·臟腑經絡先後病脈證〉 p349.
47. 張介賓: 類經·上卷. 서울. 大成出版社. 1990. 〈疾病類〉 p268.
48.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醫易義〉 p242.

1981. 〈上古天真論〉 p2.

데 數는 오히려 陰이다.

이에 대해 張景岳는 “七은 爲少陽之數요 女는 本陰體나 而得陽數者는 陰中有陽也라.⁴⁹⁾” “八은 爲少陰之數요 男은 本陽體나 而得陰數者는 陽中有陰也라.⁵⁰⁾” 하고 있다.

筆者 생각에 이것은 인체의 體用관계, 陰陽관계, 先後天관계등으로 생각 되는데, ‘人身이 小天地’라 하여 우주의 변화 규율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므로 陽中の陰, 陰中の陽이 상호작용하여 制約과 互用하여 변화 발전시킨다고 사료된다. 즉 太極에 兩儀가 갖추어져 변화 발전하는것 처럼 인신의 形體, 性情, 生理活動등이 陰陽複合의 關係로 이루어져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天地萬物之道는 惟陰陽二氣而已라. 陰陽作合하여 原不相離하니 所以 陽中必有陰하고 陰中必有陽이라. 儒家는 爲之互根이라 하고 道家는 爲之顛倒라하니 皆所以發明此理也라. 如離火는 屬陽居南하고 而其中則偶니 是는 外陽而內陰也요 坎水는 屬陰居北하고 而其中則奇니 是는 外陰而內陽也라. 震, 坎, 艮은 是爲三男이니 而陰多於陽하고 巽, 離, 兌는 是爲三女이니 而陽多於陰이라.⁵¹⁾” 하여 통일된 사물체에서의 陰陽의 互用성과 발현되는 상대적 성질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성장발육에 있어서 여자는 七歲로 일단계, 남자는 八歲로 일단계가 되어 醫學에서 易學에 모두 습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는 六十四卦 圓圖의 陰陽升降次序로 인간의 生長壯老를 비유하여 그 변화의 점진적 모습을 설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질서 정연함이 있다.

第2節. 醫易結合的인 生理

1. 陰陽과 人間の 生理

陰陽對立統一法則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인체로서 말하면 腹은 陰, 背는 陽, 裏는 陰, 表는 陽이다. 臟腑로써 말하면 臟은 陰, 腑는 陽이고 氣血로서 말하면 氣는 陽, 血은 陰이고 經絡으로써 말하면 手足에 各各 三陰經과 三陽經이 있다. 실질장기와 그 작용으로써 말하면 실질장기는 陰, 그 작용은 陽이고 氣機升降으로 말하면 降者는 陰, 升者는 陽이다.

위와 같이 인체생리는 陰陽對立과 統一의 法則으로 설명되고 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 先天之 元陰元陽

景岳은 인간의 生理面에서 先天無形의 陰陽과 後天有形의 陰陽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後者는 氣血臟腑, 寒熱 등으로 前者는 元陽元陰이라 언급하였다. “元陽者는 卽無形之火로 以生以化하니 神機 1 是也요 性命係之故로 亦曰元氣라. 元陰者는 卽無形之水로 以長以立하니 天癸 1 是也요 強弱係之故로 亦曰元精이라. 元精元氣者는 卽化生精氣之元神也라. 生氣通天이 惟賴乎此인저! ⁵²⁾”라고 하였다.

이것은 先天의 元陰元陽이 인체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물질이며 易의 兩儀가 象에서 비롯됨을 말하여 주고 있으므로 易의 이치가 醫學에 투영됨을 볼 수 있다.

또 “太極動而生陽하고 靜而生陰하니 天生於動하고 地生於靜이라. 陽은 爲陰之偶요 陰은 爲陽之基라. 以體而言爲天地요 以用而言爲乾坤이요 以道而言爲陰陽이니 一動一靜이 互爲其根이라. 分陰分陽하여 兩儀立焉하니 是는 爲有象之始라. 因形以寓氣하고 因氣以化神이라.⁵³⁾” 하여 元陰元陽이 人生之初와 出生之後에도 역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물질적 기초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 陰陽互根依存

陰과 陽은 대립적이고 또한 통일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陰陽은 상호의존하며 相失함이 없다. 인간의 생리면으로 언급하면 氣와 血은 명확한一例인 것이다. 血은 無氣면 不行하고 氣는 無血이면 不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張景岳는 “蓋陰은 不可以無陽하니 非氣면 無以生形也요 陽은 不可以無陰하니 非形이면 無以載氣也라.⁵⁴⁾”라 하였다. 그는 卦象으로 비유하여 “離火는 屬陽居南하고 而其中則偶니 是는 外

50. 張介賓: 類經·上卷. 서울. 大成出版社. 1990. <藏象類> p63.

51. 張介賓: 類經·上卷. 서울. 大成出版社. 1990. <藏象類> p62.

52. 張介賓: 景岳全書·上卷. 서울. 大成出版社. 1988. <傳忠錄, 陰陽篇> p5.

5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醫易義> p54.

54.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眞陰論> p275.

49. 張介賓: 類經·上卷. 서울. 大成出版社. 1990. <藏象類> p62.

陽而內陰也요 坎水是 屬陰居北하고 而其中則奇니 是는 外陰而內陽也라. 55)”고 설명하였다. 《內經》에서 말한 “陰在內 陽之守也요 陽在外 陰之使也라. 56)” 말한 것과 상통한다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臟腑의 陰陽相配, 經絡間의 相互表裏, 營衛의 關係, 水火의 相濟, 升陽之相因 等 생리현상들이 한결 같이 상호의존적 이치에 의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陰平陽秘 精神乃治

陰陽은 상호 반드시 상대적 평형을 유지하면太過 또는 不及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체생리는 陰陽이 상대적 평형할 때에는 비로서 정상적 생리작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병리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景岳은 “天地陰陽之道1 本貴和平하여 則氣令調而萬物生하니 此는 造化生成之理也라. 57)”고 하고 또 “陰陽之氣는 最不宜偏호대 不偏則氣和而生物하고 偏則氣乖而殺物이라. 58)”고 하였다.

인체에서 만일 偏勝偏衰한 상황이 출현하면 조절하여 和平에 돌아가게 요구되는데 景岳은 動極者를 靜으로 鎮하고 陰亢者는 陽으로 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陰陽의 상태를 파악하여 調平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陰陽이 상대평형이 회복되었을때 비로써 인체생리가 정상적으로 되니 이는 易의 “保合大和59)” 사상과 기본적으로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라. 陽主生 陰主殺

景岳은 陰陽二氣가 不宜偏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陽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朱丹溪의 ‘陽常有餘 陰常不足’의說을 비판하였다. 景岳은 形氣로써 언급하여 “陽化氣 陰成形이라. 是는 形1 本屬陰이나 而凡通體之溫者는 陽氣也라. 一生之活者는 陽氣也며 五官五臟之神明不測者도 陽氣也라60)”하고 寒熱로써 언급하여 “熱爲陽 陰爲陰이니 春夏之煖은 爲陽이요 秋冬之冷은 爲陰이라. 當長夏之暑는 萬國如爐1 其時也라. 凡草木昆蟲이 咸苦煎炙나 然이나 愈熱則愈繁이요 不熱則 不盛하니 及乎一夕風霜에 即殞枯偏野라. 是는 熱이 能生物이나 而過熱者 惟病이요 寒은 無生意며 而過寒則

伐盡이라. 然則 熱無傷而 寒可畏니라61)”고 하여 人身의 生에 陽氣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水火로써 언급하여 “水爲陰 火爲陽62)” “天一生水하고… 夫天一者는 天之一也라. 一即陽也요 無一則止於六耳라 故로 水之生物者1 賴此一也며 水之化氣者1 亦賴此一也라. 不觀乎春夏之水를 土得之하여 而能生能長者는 非有一乎인저! 秋冬之水를 土得之하여 不生不長者는 非無此一乎아!63)”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形氣, 寒熱, 水火 等 方面의 論證下에서 결론을 내어 말하기를 “天地大寶은 只此一丸紅日이요 人之大寶은 只此一息眞陽이라64)” 하였다. 즉 《大寶論》에서 ‘人은 是小乾坤이니 得陽則生하고 失陽則死라…故로 伏羲作易할새 首制一爻라. 此는 立元陽之祖也라…凡六十四卦에 皆以陽喻君子하고 陰喻小人하니 此는 陰陽之德也라’ 하여 陽氣가 人체에서 매우 중요하고 溫補爲主의 理論의 기초가 됨을 설명하였다. 65)

이는 乾卦의 陽을 중시하여 陽이 위주가 된다는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得陽則生 失陽則死66)”는 生死가 모두 陽氣에 있다는 것으로 《乾卦·象傳》의 “天行이 健하니 君子1 以하여 自彊不息하나니라. 67)”와 상통하고 있다.

인체 生理面을 추론해보면 氣는 陽이요 精(血)

56. 王琦 外4人: 素問今釋. 《陰陽應象大論》 p27.

57. 張介賓: 類經·上卷. 《傳忠錄·陰陽篇》 p5.

58. 張介賓: 類經圖翼. 《類經附翼·大寶論》 p272.

59. 易·乾卦·象傳: …乾道1 變化에 各正性命 하나니 保合大和하여 乃利貞하나니라.

60.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求正錄·大寶論》 p273.

6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求正錄·大寶論》 p273.

6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求正錄·大寶論》 p273.

6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求正錄·大寶論》 p274.

64.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求正錄·大寶論》 p275.

65. 劉杰 袁峻: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1995. p19.

6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附翼·求正錄·大寶論》 p274.

67. 金錫鎮 講解: 大山周易講解 上卷. 서울. 大有출판사. 1995. p77.

55. 張介賓: 類經·上卷. 서울. 大成出版社. 1990. 《藏象類》 p62.

은 陰이니 精血之生에 역시 陽氣가 있고 ‘得陽則生하고 失陽則死’ 인 것이다.

그러므로 景岳은 “自幼至老에 凡在生者는 無非生氣爲之主니 而一生之生氣1 何莫非陽氣爲之主... 陽強則壽하고 陽衰則夭라... 難得易失者1 惟此陽氣요 既失而難復者1 亦惟此陽氣라68)”고 하여 인간의 生長壯老는 모두 陽氣의 변화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景岳은 위와같이 陰陽二氣가 어느쪽에 偏盛 안되는 前提下에서 인체 생리작용에 陽氣를 최고로 삼았다.

2. 藏象과 卦象

臟은 月(=肉, 인체의 肌肉)이 안에 藏하여 있다는 뜻이고 象은 이치를 갖추고 밖으로 드러워진 徵兆, 機微등을 의미하므로 臟象은 장부의 현상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河圖, 洛書의 象數理論에서 도입되었고 臟象理論은 《內經》 등에 많이 분포되어 한의학의 중요한 기초이론인 것이다.

인체의 臟腑作用, 活動이 비록 많으나 귀납적 방법으로 추리하면 陰陽 양방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卦象도 또한 陰陽爻가 교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이 또한 陰陽인 것이다. 그러므로 景岳은 卦象을 이용하여 의학적 이론을 설명하였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卦象과 形體

일체의 形體 또한 대립과 통일의 유기체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니 《內經》에서 “夫言人之陰陽則 外爲陽 內爲陰이요 言人身之陰陽則 背爲陽 腹爲陰이요 言人身之臟腑中陰陽則 臟者爲陰이요 腑者爲陽이라.69)”고 하였고 《易·說卦傳》에는 陰陽交錯의 卦象을 近取諸身하여 인체와 각 기관에 비유하여 “乾爲首이요 坤爲腹이요 震爲足이요 巽爲股이요 坎爲耳이요 離爲目이요 艮爲手이요 兌爲口라.70)”고 하였다.

張景岳은 이것에 대해 “以形體言之則 乾爲首니 陽尊居上也요 坤爲腹이니 陰廣容物也요 坎爲耳니 陽聽於內也요 離爲目이니 陽明在外也요 兌爲口니 折開於上也요 巽爲股이니 陽垂而下也요 艮爲手니 陽居於前也요 震爲足이니 剛動在下也라.71)”고 하

였다.

이것은 形象上 비유한것 뿐 아니라 그것들의 작용도 반영한 것인데 예를 들면 腹을 陰廣容物이라든지 귀를 陽聽於內 눈을 陽明在外 등으로 한 것은 形象과 相似하며 또한 작용면에서도 相合하니 일정한 意義가 있는 것이다.

나. 卦象과 臟腑部位

臟은 陰이요 腑는 陽이다. 또 五臟六腑가 體腔 內에 있고 각각 일정한 부위가 있는데 부위별로 보면 크게 上, 中, 下로 나눌수 있다. 이것은 卦象에 陰爻, 陽爻가 每卦마다 六爻가 있고 역시 上, 中, 下로 나눌수 있음과 더불어 서로 相合한다.

예를 들면 坤(그림) 卦는 臟을 象하고 乾(그림) 卦는 腑를 象한다하여 景岳은 “則自初六至上六은 爲陰爲臟이니 初六次命門이요 六二次腎이요 六三次肝이요 六四次脾이요 六五次心이요 上六次肺라.72)” 하고 “初九至上九는 爲陽爲腑니 初九는 當膀胱이요 九二는 當大腸이요 九三은 當小腸이요 九四는 當膽이요 九五는 當胃이요 上九는 當三焦니 知乎此라. 而臟腑之陰陽은 內景之高下에 象이 在 其中矣라.73)” 하였다.

六74)은 陰爻이며 五臟에 비유되고 九75)는 陽爻이고 六腑에 비유되므로 初爻부터 上爻까지 또한 장부가 아래부터 위로 여섯개의 層次가 있음을 보여준다.

五臟으로 언급하면 腎位는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은 肝, 脾, 心, 肺의 순서이고 六腑는 膀胱이 제일 아래에 있고 大腸, 小腸, 膽, 胃, 三焦의 순서이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해부적인 위치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장부 표시를 卦로 표기하면 응용하는 면에서 매우 편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三焦에 대해 歷代부터 그 부위가 어디이며 形體 有無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衆說이 紛紛한데 張介賓은 上, 中, 下 三焦로서 三才象을 비유하여 그 위치와 형태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69. 王琦 外4人: 素問今釋. 〈金匱真言論〉 p20.

70. 金錫鎮 講解: 大山周易講解 下卷. 說卦傳 九章 p414.

71.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醫易義〉 p243.

72.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醫易義〉 p243.

73.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醫易義〉 p243.

74. 陰爻를 六이라 부른다. 參天兩地法. 六은 太陰之數.

75. 陽爻를 九라 부른다. 九는 太陽之數

68. 張介賓: 景岳全書上. 서울. 大成出版社. 1990 〈傳忠錄·陽不足再辨〉 p52.

즉 “所謂三者는 象三才也니 際上極下之謂也요 所謂焦者는 象火類也니 色赤屬陽之謂也라. 今夫人之身은 外自皮毛하고 內自藏府라. 無巨無名無細無目하며 其於腔腹周圍上下全體하고 象1 若大囊者라. 果何物耶리오? 且其著內一層이 形色最赤하고 象如六合하고 總護諸陽하니 是는 非三焦而何리오!76)” 라고 하였다.

이것은 三焦가 실제 그 형체가 있다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형상비유에 있어 際上極下을 三部로 나누어 三才로써 象을 取하였다. 臟腑를 囊括하여도 또 六合의 象이되니 三焦의 이름과 상태가 이미 확연히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다. 卦象과 臟腑 作用

臟腑는 안에 존재하고 象은 밖에서 볼 수 있으므로 한의학에서의 장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象에 서 착안하였다.

張景岳도 卦象을 이용하여 臟象을 이해하였는데 예를 들면 腎과 命門 二臟의 작용에 있어 腎主水, 藏精하고 眞陰眞陽이 水火二性을 갖추니 이는 인체 생명활동의 최고로 중요한 기능인 것으로 보고 있다.

景岳은 〈命門餘義〉에서 “命門有生氣는 而乾元不息之機也라. 無生則息矣라. 蓋陽主動하고 陰主靜하며 陽主升하고 陰主降하니 惟動惟升은 所以陽得生氣요 惟靜惟降은 所以陰得死氣라. 故로 乾元之氣는 始於下而盛於上하니 升則向生也요 坤元之氣는 始於上而盛於下하니 降則向死也라. 故로 陽은 生子中하야 而前升後降하고 陰은 生午中하야 而前降後升하니 此는 陰陽之岐라. 相間이 不過如毛髮이나 及其竟也엔 則謬以千里하니 而死生之柄은 實惟此毫釐升降之機耳니라.77)” 하여 乾坤의 義로 命門의 生氣를 설명하였다.

그는 腎者는 主水하며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五液이 皆歸乎精하고 而五精은 皆統乎腎이니 腎有精室이라. 是曰命門이라. 爲天一所居即 眞陰之腑요 精藏於此하니 精即陰中之水也요 氣化於此하니 氣即陰中之火也라. 命門居兩腎之中하니 即人身之太極이라. 由太極하야 以生兩儀하고 而水火具焉하니 消長系焉이라 故로 爲受生之初며 爲性命之本이라.78)” 하여 腎과 命門이

인체생리에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腎, 命門의 陰陽相偶關係를 진일보적으로 “命門은 爲陽氣之根이라…合而言之則 命門象太極하니 爲消長之樞紐이라. 左主升하고 而右主降하며 前主陰하고 而後主陽이라 故로 水象이 外暗而內明하고 坎卦1 內奇而外偶하니 腎兩者는 坎外之偶也요. 命門一者는 坎中之氣也라. 一以通兩하고 兩以包一하니 是는 命門이 總主乎兩腎하고 而兩腎이 皆屬於命門이라 故로 命門者는 爲水火之腑며 爲陰陽之宅이며 精血之海며 爲死生之寶이라. 若命門虧損則 五臟六腑1 皆失所恃며 而陰陽病變이 無所不至니라.79)”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趙獻可의 ‘主不明則十二宮危’의 命門之說과 서로 相得하여 一脈相通하고 있다80).

이와같이 卦象으로 臟象을 해석하여 腎과 命門의 性質, 작용과 兩者의 상호관계가 생명활동에 중요함을 파악하여 상세히 찬술하였다.

라. 命門과 脾胃과의 關係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命門과 腎의 分활적 관계는 불가하나 命門과 脾胃는 先後天 關係로 볼 수 있고 이는 또한 火土相生의 母子關係로 볼 수 있다. 命門은 火에 속하며 脾胃는 土에 속해 火能生土며 또한 이는 脾胃의 土受納, 運化水穀의 작용이 命門 元陽의 溫養에 힘입어야 비로소 충분히 발휘하고 그렇지 않으면 脾胃機能이 失調되어 納呆, 消化不良, 便溏등의 증상이 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張景岳은 “命門은 爲精血之海요 脾胃는 爲水穀之海니 均爲五臟六腑之體라. 然이나 命門은 爲元氣之根이며 爲水火之宅이니 五臟之陰氣1 非此면 不能滋하고 五臟之陽氣1 非此면 不能發이라. 而脾胃以中洲之土니 非火면 不能生이라. 然이나 必春氣는 始於下하니 三陽이 從地起而後에 萬物이 得以化生이라. 豈非命門之在下면 正爲脾胃之母乎아!81)” 라하여 命門과 脾胃의 母子關係와 생

77.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命門餘義〉 p57.

78.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眞陰論〉 p277.

79.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三焦包絡命門辨〉 p271~p272.

80. 劉杰 袁峻: 中國八卦醫學. 青島출판사. 1995. p19

81.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命門餘義〉 p55~p56.

76.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三焦包絡命門辨〉 p269.

리상 상호 資生함을 볼 수 있다.

만일 脾胃가 虛한즉 子盜母氣하여 命門에 영향을 끼치고 반대로 命門의 陽이 부족하여 脾土를 溫燥하지 못하면 脾胃 역시 虛하게 된다.

다만 이 뿐 아니라 命門이 十二臟之源이 되니 景岳은 “心賴之則 君主以明하고 肺賴之則 治節以行하고 脾胃賴之하여 濟倉廩之富하고 肝膽賴之하여 資謀慮之本하고 膀胱賴之則 三焦氣化하고 大, 小腸賴之則 傳導自分이라.⁸²⁾”고 하였다.

그러나 脾胃의 後天之本의 작용 또한 소홀이 보면 안되니 만일 脾胃가 없으면 精血이 化生하지 못하고 十二臟의 化源 역시 없어지게 되니 命門과 脾胃가 인체생명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만 命門의 火는 陰中之火이고 별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景岳은 復卦()로 비유하여 “…故로 易에 以雷出地下하여 而爲復하니 可見火之標在上하고 而火之本則在下라. 且火知就燥하며 性이 極寒畏이라. 若使命門으로 陰勝則 元陽畏避하고 而龍火無藏身之地也라. 故로 致遊散不歸하여 而爲 煩熱, 格陽等病이라. 凡善治此者는 惟從其性하나 但使陽和之氣로 直入坎中하여 据其窟宅而招之誘之면 則相求同氣하여 而虛陽이 無不歸原矣라⁸³⁾”고 하여 火의 특성과 虛陽이 출현했을때의 치료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마. 氣血과 人身의 관계

《內經》에 “中焦¹ 受氣取汁하고 變化以赤하니 是爲血이라⁸⁴⁾,”營氣者는 泌其津液하고 注之於脈하며 化以爲血하여 以營四末하고 內注五臟六腑라.⁸⁵⁾” 하여 氣와 血이 인체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본물질이며 氣血 모두 水穀의 精氣에서 來源한다고 하였다.

氣는 水穀의 精氣와 天氣와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所謂 “眞氣者는 所受於天과 與穀氣并而充身也라⁸⁶⁾”한 것이 이것이다.

景岳은 前人들의 이론에 기초를 하여 氣血의 來源, 作用 및 그 상호관계를 진일보적으로 “夫人身之用은 止此血氣라. 雖五臟이 皆有氣血인댄 而其綱領則 肺出氣也며 腎納氣也라. 故로 肺는 爲氣之主요 腎는 爲氣之本也라. 血者는 水穀之精也니 源而來하여 而實生化於脾하고 總統於心하고 藏受於肝하고 宣布於肺하고 施泄於腎而灌溉一身이라.

所謂 氣主噓之하고 血主濡之하니 而血氣는 爲人之 橐龕이라 是는 皆人之所同也라.⁸⁷⁾”고 설명하였다.

소위 ‘主噓’ ‘主濡’ ‘橐龕’은 氣血이 인체의 중요작용, 互用됨과 相補的 關係를 설명하는데 氣는 血師요 血은 氣母요 血이 無氣면 不行함과 氣가 無血이면 不附함이 바로 陰陽관계와 상통하는 것이다.

즉 景岳은 “陰은 不可以無陽하니 非氣면 無以生形也요 陽은 不可以無陰하니 非形이면 無以載氣也라.⁸⁸⁾”고 하여 陰陽의 互根性和 상호의존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人身의 氣血關係를 강조하였다.

第3節. 醫易綜合의 病理

景岳은 “寒熱者는 陰陽之化也라. 陰不足則 陽乘之하여 其變이 爲熱이요 陽不足則 陰乘之하여 其變이 爲寒이라. 故로 陰勝則 陽病이요 陽勝則 陰病이니 陽勝¹ 爲熱也라.⁸⁹⁾” 하여 陰陽盛衰의 변화가 질병이 되는 이치를 말하고 있다.

또한 病理해석에 卦象을 이용하였는데 좀 더 자세히 그의 사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陰陽證分

일반적으로 수 많은 病證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개 八綱辨證을 하게 되는데 즉 陰陽으로 나누고 表裏, 寒熱, 虛實로 나눈다. 이때 表裏, 寒熱, 虛實은 모두 陰陽兩綱에 총괄된다.

綱을 들어 目を 펼치면 辨證에 실수가 없으니 景岳은 “陰陽¹ 旣明則 表與裏對하고 虛與實對하고 寒與熱對하니 明此六變과 明此陰陽하면 則天下之 病固¹ 不能出此八者라⁹⁰⁾” 하고 八綱中 表裏, 寒

82.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眞陰論〉 p277.

83.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命門餘義〉 p57.

84.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校釋·上冊. 人民衛生出版社. 1982. 〈決氣篇〉 p499.

85.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校釋·下冊. 人民衛生出版社. 1982. 〈邪客篇〉 p266.

86.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校釋·下冊. 人民衛生出版社. 1982. 〈刺節眞邪篇〉 p352.

87.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藏象別論〉 p39.

88.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求正錄·眞陰論〉 p275.

89.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寒熱篇〉 p15.

90.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明理〉 p4.

熱, 虛實 六變을 “是即 醫中之關鍵이니 明此六者면 萬病이 皆指諸掌矣라⁹¹⁾” 하였다. 그러므로 陰陽은 綱이 되고 六變은 目이 되며 病症의 구체적 성질이므로 目이 關鍵이 됨을 말하고 있다.

表裏로 말하면 表證은 陽이고 裏證은 陰이 되고 表裏에도 각각 虛實로 나누고 각각 寒熱의 다름이 있으니 表熱裏寒 또는 表寒裏熱등의 상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寒熱虛實 역시 表를 兼하거나 裏를 兼함으로써 虛實이 잡다하게 섞이며 寒熱 相互 結合的 상황으로 파악 될 수 있다.

그러므로 陰陽으로만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 하므로 病程을 분석함을 근거로하여 총괄적으로 병의 성질을 定함이 옳다고 사료된다.

즉 陰陽은 辨證의 總綱이 되고 이러한 總綱이 있음으로 해서 由博返約하고 執簡驟繁하여 치료에 있어 비로서 주요 모순점을 알고 예후나 효과등을 능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⁹²⁾

그러므로 景岳은 “醫道誰繁이나 而可以一言之蔽之하니 曰 陰陽而已라.⁹³⁾” “陰陽無謬한덴 治焉有差리오⁹⁴⁾”라고 강조하여 말하였다.

그외에 病理變化도 또한 陰陽의 消長이니 景岳은 卦象으로 비유하여 “則泰⁹⁵⁾는 爲上下之交通이요 否⁹⁶⁾는 是乾坤之隔絶이요 既濟⁹⁷⁾는 爲心腎相諧요 未濟⁹⁸⁾는 爲陰陽各別이라. 太過⁹⁹⁾, 小過¹⁰⁰⁾는 入則 陰寒漸深하야 而出爲癥痞之象이라. 中孚¹⁰¹⁾, 頤卦¹⁰²⁾에 中은 如土臟不足이요 頤는 爲膨脹之形이라. 剝¹⁰³⁾, 復¹⁰⁴⁾은 如隔陽, 脫陽이고 夬¹⁰⁵⁾, 姤¹⁰⁶⁾는 如隔陰, 脫陰이라. 觀¹⁰⁷⁾은 是陽衰之漸이요 遯¹⁰⁸⁾은 藏陰長之因이라¹⁰⁹⁾” 하였다.

이것은 景岳이 卦象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같은 논리구조를 韓醫學의 이론체계에 적용시켜 臟象學說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처럼 景岳은 陰陽消長之機와 寒熱盛衰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卦象으로 설명함을 볼 수 있다. 이는 韓醫學의 병리현상을 卦로 표시함으로써 生理, 辨證施治를 類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大成卦 및 小成卦의 상태, 상호관계, 각 爻의 動함을 보고 病所 및 治法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生克乘侮의 病理

《內經》에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¹¹⁰⁾”라 하니 이는 자연기후이며 인체 생리병리도 또한 이와 같다.

‘承制’는 生理요 ‘亢害’는 病理이다. 五臟으로 말하면 肝은 木에 속하며 木이 過極하면 脾土를 極하여 脾가 傷하게 된다. 土는 성질이 克水하므로 水가 過勝하면 그 克을 받지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土가 弱함을 乘하여 侮하게 된다. 이것은 太過가 출현 할때의 乘侮病理이다.

不及일때도 같은 현상이 있으니 또한 병리현상이다. 만일 土가 弱하여 不能生金하면 肺虛 咳逆之證이 나타나고 火不生土면 泄瀉, 食少등의 證이 나타나며 水不涵木이면 肝陽上亢의 證이 나타나는 것이다.

景岳은 “凡有所勝이면 必有所敗오 有所敗면 必有所復이라. 母之敗也에 子必救之라. 如水之太過면 火受傷矣나 火之子 土出而制焉이라……, 土之太過면 水受傷矣나 水之子 木出而制焉이라.¹¹¹⁾” 하여 生克乘侮의 病理를 설명 하였다.

五行法則은 이러한 勝復이 있어 平衡을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亢하여 害가 되는 것이다. 五臟之間에도 역시 그러하니 상호촉진과 상호제약적 상황하에서 平衡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깨지면 한 장기에 병이 있어 他臟에 영향을 주는데 “

92. 李浚川 肅漢明 主編: 醫易會通精義 p213

93.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陰陽篇> p4.

94.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陰陽篇> p4.

95. 地天泰. 11번째 卦

96. 天地否. 12번째 卦

97. 水火既濟. 63번째 卦

98. 火水未濟. 64번째 卦

99. 澤風大過. 28번째 卦

100. 雷山小過. 62번째 卦

101. 風澤中孚. 61번째 卦

102. 山雷頤. 27번째 卦

103. 山地剝. 23번째 卦

104. 地雷復. 24번째 卦

105. 澤天夬. 43번째 卦

106. 天風姤. 44번째 卦

107. 風地觀. 20번째 卦

108. 天山遯. 33번째 卦

109.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醫易義> p246.

110. 王琦 外4人: 素問今釋. <六微旨大論>

p325.

111. 張介賓: 類經圖翼. <五行統論> p16.

91.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六變辨> p7.

見肝之病하면 知肝傳脾라112)” 하여 肝病이 脾로 전해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脾虛하여 土不制水하면 水泛하여 痰이 되고 腫이 되며 土虛不能生金, 火衰不能生土 등은 모두 상응하는 병증이 보이며 이외에도 母病이 子에 미치고(虛邪) 子病이 母에 傳하는(實邪)等等은 모두 五行 生克乘侮로써 병리를 해석한 것이다. 그 치료 또한 이러한 관계를 조정함에 있는데 太過, 不及을 없게하고 相生관계와 相制관계를 유지함이 그 요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景岳은 “造化之機는 不可無生하고 亦不可無制라. 無生則發育無由하며 無制則亢而爲害라113)” 하였다. 또한 五行生克乘侮의 病理를 “若離火1 臨乾할새 非頭면 卽藏이오 若逢兌卦면 口肺相連하고 交坎이면 互相利害하고 入東이면 木火防炎하고 坤艮은 雖然喜煖이나 太過하면 亦恐枯乾이요 坎爲木母며 震巽相便이니 若逢土位면 反剋最嫌하며 金水是 本爲同氣나 失常이면 燥濕相干하며 坤艮1 居中이나 怕逢東旺하니 若當乾兌면 稍見安然하니……114)” 이라 하여 景岳은 卦象과 결합시켜 해석하여 醫易相通을 제시하고 있다.

第4節. 辨證論治中の 易理

辨證은 수단이고 治療는 목적이다. “治病에 必求於本115)” 이란 말은 변증의 정확성을 요구하며 질병의 본질을 파악하여야 치료에 실수를 없애고 예방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景岳은 “故로 治病之道는 必確知爲寒하면 則竟散其寒하고 確知爲熱하면 則竟清其熱이라. 一拔其本하야 諸證盡除矣니라.116)” 하여 治病求本이 辨證施治의 關鍵임을 말하고 있다.

景岳의 이러한 말은 求本을 하기 위해서는 醫師는 자신의 이론과 경험을 잘 활용하여야 하며 變通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易·繫辭》에 “剛柔者는 立本者也요 變通者는 趣時者也라117)” 한 것과 그 의미가 相通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景岳의 易理를 통한 辨證施治 하는것을 簡考하면 다음과 같다.

1. 疾病과 氣機變化

氣는 인체생리활동의 표현이다. 氣가 문란해지

면 바로 病人 것이다. 《內經》에서 “百病生於氣也라. 怒則氣上하고 喜則氣緩하고 悲則氣消하고 恐則氣下하고 寒則氣收하고 熱則氣泄하고 驚則氣亂하고 勞則氣耗하고 思則氣結이라.118)” 하여 七情의 변화에 의한 氣의 상태를 말하였는데 이는 醫者가 治病에 있어 氣機를 조리함이 제일 요건임을 말해준다.

景岳은 위의 말을 추종하여 ‘醫를 行함에 氣를 알지 못하면 治病에 무엇을 근거하여 따르겠는가?’ 라고 말하고 아울러 “天地之道에 陽主氣하니 先天也오 陰成形하니 後天也라. 故로 凡上下之升降과 寒熱之往來와 晦明之變易과 風水之留行이 無不因氣爲動靜이니 而人之於氣도 亦由是也라. 凡有餘之病은 由氣之實이오 不足之病은 由氣之虛라. 如風寒積滯와 痰飲瘀血之屬은 氣不行則邪不除하니 此는 氣之實也오 虛勞遺漏와 亡陽失血之屬은 氣不固則 元不復하니 此는 氣之虛也라. 雖曰瀉火는 實所以降氣也요 雖曰補陰은 實所以生氣也라.119)” 하여 더욱 발전된 설명을 제시하였다.

景岳의 이 논술은 다만 치료의 요령을 잡는 것 뿐 아니라 氣와 形의 對待를 추리하여 先天과 後天, 陰陽, 寒熱, 晦明等 對待關係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 모두는 氣의 動靜인 것이다. 疾病이 비록 많지만 有餘, 不足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有餘는 瀉하고 不足을 補함이 역시 氣機調治인 것이다.

여기서 景岳의 ‘瀉火는 實所以降氣也와 補陰은 實所以生氣也’ 는 특출한 견해라 볼 수 있으며 그 는 水火陰陽의 상호관계로써 辨證의 運用과 氣機調治의 方法의 요령을 후세사람에게 보여 주었는데 이것은 임상치료에 있어서 상당한 開發과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2. 陽中求陰, 陰中求陽

景岳의 學術사상과 制方, 遺藥을 보면 그가 溫補

113. 張介賓: 類經圖翼. 〈五行統論〉 p16.

114.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醫易義〉 p131.

115. 王琦 外4人: 素問今釋. 〈陰陽應象大論〉 p26.

116.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論治論〉 p25.

117. 金錫鎮 講解: 大山周易講解 下卷. 繫辭 下一章. p350.

118. 王琦 外4人: 素問今釋. 〈舉痛論〉 p189.

119.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論治篇〉 p29~p30.

112. 張仲景: 仲景全書. 大星文化社. 1992. 〈金匱要略·臟腑經絡先後病脈證〉 p349.

學派에 屬함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易有萬象하니 而欲以一字로 統之者는 曰陽而已矣요 生死事大而欲以一字로 蔽之者는 亦曰陽而已矣라¹²⁰⁾” 하여 陽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그는 또한 朱丹溪의 ‘陽常有餘 陰常不足’ 理論을 힘주어 비판하면서 “...今見百人之中에 凡蓋天年而終者는 果得其機리오? 此는 其天而不及者는 皆非生氣之不及耶아! 而何以見陽之有餘也리오? 陽強則壽하고 陽衰則夭하니 又何以見陽之有餘也리오?...形은 陰也요 神은 陽也라. 神氣去나 而形猶存하니 此는 正陽常不足之結局也라. 而可謂陽常有餘乎아? ¹²¹⁾” 하여 인체의 陽, 즉 元陽이 충실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며 사람은 陽氣로써 보배를 삼으니 “即日慮其虧나 亦非過也라¹²²⁾” 고 의견을 펼쳤다.

그러므로 그의 制方, 遺藥은 溫補에 偏重되어 있는데 비교해 보면 補方 29, 攻方 6, 寒方 20, 熱方 25개 이므로 溫熱藥과 溫補方劑가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熱證明顯하니 人多易見하고 寒證隱微하니 人多不知라.熟知實熱爲病者¹ 十中不過三四요 虛火爲病者¹ 十中嘗見六七인저!¹²³⁾” 라고 하여 실제 응용중에서 溫補를 중시함을 더욱 명현하게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未嘗不致其扶陽抑陰之義 ” 라 하여 易의 消長之機를 응용하였다.

그러나 景岳이 비록 溫補에 偏重되었으나 “陽失陰而離者는 不補陰이니 何以收散亡之陽하리오! 水失火而敗者는 不補火니 何以甦垂寂之陰하리오! 此는 又陰陽相濟之妙用也라. 故로 善補陽者는 必於陰中求陽則 陽得陰助而生化無窮이요 善補陰는 必於陽中陰則 陰得陽升而泉源不竭이라. ¹²⁴⁾” 하여 陰陽調變과 剛柔相濟를 매우 강조 하였다.

구체적인 制方, 遺藥에 있어서도 한결같은 사상을 볼 수 있으니 예를들면 그가 仲景의 腎氣丸의 의미를 승상하여 左歸丸¹²⁵⁾과 右歸丸¹²⁶⁾을 만들었다. 前者는 眞陰腎水 不足을 치료하는데 熟地, 山茱萸, 山藥, 枸杞子等 滋補陰血의 藥劑에 鹿角膠를 加하여 溫補腎陽하였고 後者는 元陽不足을 치료하는 方劑로 肉桂, 附子등 辛熱助陽藥中에 역시 熟地, 山藥, 山茱萸, 枸杞子等으로 滋養肝腎하는 약물을 加하였다.

이는 陰中求陽, 陽中求陰의 원칙에 입각하여 만든 처방인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臨床辨證施治에

있어서 중요한 意義를 갖는 다고 사료된다.

3. 辨證施治, 能圓能方

所謂 ‘方’은 醫師가 立法處方한 것으로 엄격한 法則이 있음을 요구되는 것이오 ‘圓’은 법칙이 존재하는 前提下에서 활발히 運用되는 것이다. 醫師가 治病에 비록 동일 법칙을 준수하더라도 病의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나에 따라서 치료효과의 大小와 有無가 서로 같지않다. ¹²⁷⁾

그러므로 景岳은 方을 지키는 마땅하지만 方의 議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하며 “藥不執方하며 合宜而用이니 此는 方之不必有也요 方以立法하고 法以制宜니 此는 方之不可無也라¹²⁸⁾” 하고 또 “意貴圓通하고 用嫌執滯라¹²⁹⁾” 하여 이것이 요령이라고 하였다.

이는 立法制方의 有無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일정한 法則이 요구되고 또 病에 따라 마땅한 治法으로 활발히 運用되어야함을 설명한 것이다.

圓通과 原則을 견고히 지키는 변증적 통일이니 “圓通中 不可無執持也¹³⁰⁾” 와 “執持中 不可無圓活也¹³¹⁾” 라 하였다. 다만 이것은 “圓活은 宜從三思하고 執持는 順有定見이라¹³²⁾” 한 것이다. 그러므로 能方能圓은 바로 方을 잘 운용하는 醫師라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景岳의 《景岳全書·新方八略》에서 원칙적 기초상에 圓活이 보이고 圓活한 운용상에 있어서 원칙적인 정신에 떠나지 않음이 기본적으로 나타난

121.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陽不足再辨〉 p52.

122. 張介賓: 景岳全書上. 〈傳忠錄·陽不足再辨〉 p53.

123.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求正錄·眞陰論〉 p275.

124.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補略〉 p411.

125. 熟地8兩. 山藥, 山茱萸, 阿膠 各4兩. 川牛膝3兩. 鹿角膠, 兔絲子 各2兩. 枸杞子3兩.

126. 熟地8兩. 山藥, 枸杞子, 鹿角膠, 兔絲子, 杜冲 各 4兩. 山茱萸3兩. 當歸3兩

127. 李浚川 肅漢明 主編: 醫易會通精義 p220

128.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 p410.

129.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 p411.

130.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 p411.

131.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 p411.

132.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 p411.

120. 張介賓: 類經圖翼. 〈附翼·醫易義〉 p247.

다. 예를들면 補略論에 있어서 補陰, 補陽은 ‘陰中救陽’ ‘陽中救陰’을 요구하며, 和略論에서는 “元氣를 調平함에 힘써 中和를 잃지않아 貴함이 된다는 것이다.133)”라고 論하였다.

구체적 운용에 있어서 “火動者는 忌溫煖하고 血動者는 忌辛香하고 汗動者는 忌疏散하고 神動者는 忌耗傷이라.134)”고 말하였고, 攻略論에 또 攻氣, 攻聚, 攻血, 攻積, 攻痰 등의 법이 각각 다를 뿐 아니라 “眞實者는 暫宜解標하고 多虛者는 只宜求本이라.135)”고 말하였다.

寒略論에서는 “黃連은 清心하고 黃芩은 清肺하고 石斛芍藥은 清脾하고 龍膽은 清肝하고 黃芩은 清腎이라. 今之用者는 多守此法이니 是는 亦膠柱法也라.136)”고 인식하였고 藥物加味로 언급하면 氣味가 輕清하면 마땅히 清上하고 氣味가 重濁하면 마땅히 清下하는데 “然火之甚者는 在上에도 亦宜重濁하고 火之微者는 在下에도 亦可輕清이라.137)”고 언급하였다. 이는 또한 약물에 고집하지 않음이다.

熱略論에서 散함으로써 溫을 兼하고 補함으로써 溫을 兼하며 行함으로써 溫을 兼함이 다름이 있으니 각각 마땅한 바와 忌하는 바가 있으므로 施治에 알맞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藥物 配伍關係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큰 技巧가 필요하는데 附子와 같은 補陽之力이 큰 약물에 대해 “但附子性이 悍하야 獨任爲難하니 必得大甘之品如人蔘 熟地 炙甘草之類하면 皆足以制其剛而濟其勇하야 以補倍之하니 無往不利矣라.138)”고 하였다.

因略, 固略論의 諸方들도 또한 설명하였던 勢利에 의하여 辨證施治를 다르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보면 景岳의 사상은 病에 따라 마땅한 治法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것에도 구애받지 말며 또한 옛날에 전해오는 法則을 잃지않고 能方能通하여야 온전한 醫者라는 것으로 총괄 할 수 있다.

《易·繫辭》에 “化而裁之는 存乎變하고 推而行之는 存乎通하고 神而明之는 存乎其人하고…139)”이라 하니 또한 사물에 있어 化裁를 잘 하여야 하고 變通의 중요성과 辨證施治, 制方遣藥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結 論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張介賓의 醫易思想의 原論부분과 인체의 生理的인 측면, 病理的인 측면, 辨證論治의 측면을 통해 그가 易理를 이용하여 韓醫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天人一理의 사상으로 인간의 생명활동과 천지자연의 현상이 相通한다고 하여 醫學과 易學의 상관성을 깊게 연구하여 ‘醫易’, ‘醫易同原’이란 用語를 최초로 사용하여 醫易의 종합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2. 景岳은 醫易 종합 방안을 연구하여 醫易理論을 융합하기 위하여 《類經圖翼》과 《類經附翼》을 저작하여 ‘拾以圖’ ‘翼以說’이라 하여 周易의 象數와 理致를 醫學에 精微하게 발전 시켰다.

3. 인체 生理面에서 乾卦 陽의 사상을 추종하여 인체 陽氣를 중요시하고 六爻에 장부배합 및 장부작용등을 설명하고 病理現狀도 卦象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醫易關係를 구체적으로 응용하였다.

4. 景岳은 醫易相通이 韓醫學 理論뿐 아니라 臨床治療方面까지 많은 妙用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一分爲二’, ‘變通不居’思想은 開闔, 動靜, 升降 등의 이론까지 영향을 주어 辨證施治에 흡수되어 상호 보충하는 妙用이 있다.

張介賓은 醫理와 易理가 融會貫通함을 인식하여 한의학 이론을 충실히 하였고 思惟를 개발시킨 점은 매우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또한 醫易會通의 중요성을 자각하였고 아울러 몸소 실천한 名醫學家이다. 이러한 張介賓의 醫易理論에 대해 進一步적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할뿐 아니라 醫學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34.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和略〉p412.

135.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攻略〉p412.

136.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寒略〉p414.

137.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寒略〉p414.

138.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熱略〉p415.

139. 金錫鑑 講解: 大山周易講解 下卷. 繫辭上十二章. p348.

133. 張介賓: 景岳全書下. 〈新方八略引·和略〉p411.

參 考 文 獻

1. 張介賓：類經. 서울. 大成出版社. 1990.
2. 張介賓：類經圖翼. 서울. 大成出版社. 1990.
3. 張介賓：景岳全書. 서울. 大成出版社. 1990.
4. 李浚川 肅漢明 主編：醫易會通精義. 人民衛生出版社 1991.
5. 劉杰 袁峻：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1995
6. 楊力지음 金忠烈,洪元植 옮김：周易과 中國醫學. 서울. 法仁문화사. 1993
7. 金錫鎮 講解：大山周易講解. 서울. 大有출판사. 1993.
8. 王琦 外4人：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9. 河北醫學院 校釋：靈樞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2.
10. 朴一峰譯著：老子道德經. 서울. 育文社. 1988.
11. 과학사상연구회：과학과 철학 제5집. 서울. 통나무. 1994.
12. 張仲景：仲景全書. 서울. 大成出版社. 1992.